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문화신문 4면

강북구의회 강선경 의원 발언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을 확정 발표하며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성이 낮은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민간이양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이번 안중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사업 금지 대상은 운영주체가 지방공기업인 곳으로만 한정하여 국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현재 수십 곳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 방침도 없으며 몇몇 단체는 제외되어 힘 있는 단체장 봐주기라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 행정자치부가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업실적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동골프클럽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장성 테스트 제도”의 공공성과 경제성 지표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여 민간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므로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동골프연습장 민간이양 사업 결정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선경 의원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